

특별기획

익산 주얼리집적산업센터 23일 준공

국내복귀기업과 소규모 주얼리기업에 초기투자비용절감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중인 익산 주얼리집적 산업센터가 이달 23일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총 1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에는 주얼리 소규모공장 및 원부재상가가 입주하게 된다. 공장 37개실과 소매점 8개실 등 총 45개실 등 입주공간이 마련되고, 휴식공간과 식당 코너 등 입주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같이 건립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위한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통해 현재 17개 기업에서 37개실 입주의향을 밝히고 있다.

시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해당 기업들이 바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계약, 임대계약, 공장등록 등 관련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롯데주류 군산교육발전진흥단에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롯데주류(이재혁 대표)가 16일 군산교육발전진흥단(이사장 문문신)에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롯데주류 군산공장은 1999년부터 매년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역 사회에 기탁하는 내 고장 사랑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번까지 기탁한 금액은 총 2억4500만원에 달한다.

롯데주류 군산공장은 1945년에 설립, 70년간 군산지역과 함께 해 온 향토기업으로 전체직원 175명 중 155명을 군산에서 선발해 지역출신 인재 등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장기 미착공건축물 허가취소

군산시가 장기 미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취소를 추진한다.

군산시는 16일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과 착공신고는 했으나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 미시공중인 건축물 88건에 대해 건축 허가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 했어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88건 중 미착공 건축허가 11건에 대해 지난 1일과 2일 청문을 한 후 3일 취소처분 했다.

또 폐문부제, 취소이전 등으로 청문사 청문지 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차 취소청문을 진행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농기센터 성페르몬트랩 이용 적정방제시기 통보시스템 도입예정

군산시가 최근 온난화 기후 변화로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성페르몬트랩을 이용한 해충 예찰포를 운영해 적정방제시기를 파악하여 농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까지 성페르몬트랩을 이용해 복숭아심시나방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유리나방, 사과애모무늬말나방과 담배나방 등 총 5가지 해충을 대상으로 과수와 채소 분야 주요 거점 34개소에 예찰포를 설치 운영한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산너벌레 등 돌발해충 및 외래해충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해 지속적인 예찰과 해충 변화 추이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의회, 다음달 4일 의장·부의장·4개 상임위원장 선출

의장 4파전 · 부의장 2파전 전망

다음달 4일 실시될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더민주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정의당 새누리, 무소속 등 4파전 될 시의원 선출과 익산갑은 더민주가 국회의원, 익산을은 국민의당 출신 국회의원 등을 고려할 때 표면상 4파전이나 실제로는 2파전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익산갑 3선 이춘석 의원은 더민주 익산을 4선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양분됐고, 반면에 익산시 시의원 25명 중 더민주 시의원 16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2명, 새누리 1명, 무소속 3명으로 나눠지는 등 '준

추익산시대'인 것이다.

특히 익산갑은 이춘석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반면, 익산을은 현 조배숙 의원과 전정희 전 의원 두분은 국민의당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은 3명밖에 안 되어서 익산을은 더민주와 무소속 등 '얼룩무늬'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민주당 시의원과 표결이 안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4명이 거론되는 시의장이다. 따라서 4명이 거론되는 시의장이다. 따라서 4명이 거론되는 시의장이다.

이 밖에 모 시의원은 이번에도 '자신의 이름이나 주가를 올리는 노이즈 마케팅' 수준에서 끝날 전망이다. 불과 3명의 시의원밖에 없는 국민의당에서 의장당선도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을 전망되며, 그 반면에 조규대 의장의 재선이나 소병훈 의원 양파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팎의 전망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해경 불법조업 검거 중국어선 몰수 결정

법원 몰수 판결 이번이 처음...해경 단속 적극적 역할 기대

최근 우리 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몰수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12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에 60300' 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전주법원 군산지원은 '노위고'에 60300' 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중 선장)들이 공사시설인 불법조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EEZ 내측 약 20km 지점까지 진입한 점, 해경에 검거당시 GIS가 정상작동한 점, 해경의 정선명령에 조업기물을

끌고 도주한 점, 중국에서 출항할 당시 최장살 등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준비한 점 등을 비취할 때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비해 선박몰수가 과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재범의 우려가 높고 어업자원 보전 및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위해 피고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높아 선박을 몰수한다'고 몰수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국월하게 저항한 중국어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몰수된 사례는 있었으나, 불법조업 행위만으로 몰수가 선고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고로 해경의 단속 현장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담보금을 못낸 선박은 1심판

결 후에 선주 측에 반납했으나, 이처럼 몰수가 계속된다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몰수 시 재범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불법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담보금과 이를 미납할 경우 선박 몰수까지 가능해져 경제적 피해를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경도 사범부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피고인이 일주일 내에 항소 없이 법원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현재 위탁관리 중인 중국어선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소방서, 폭염특보대비 119구급대책 추진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낮 최고 기온이 30℃를 넘나드는 때 이른 무더위로 폭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폭염특보대비 119구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폭염특보가 지난해보다 일찍 발생함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관내 16개 구급대 및 펌플런스(123명)를 구성해 폭염 대비에 나섰다.

군산소방서는 온열환자 발생에 대비해 얼음조끼와 얼음팩, 주사용 생리식

염수, 정제수 등 9종의 응급장비를 119구급대에 배치하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폭염대비 건강수칙 등 영상 및 도내 무더위 쉼터 지정 현황을 게재하는 등 민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발생 시간대는 낮 12시~오후4시가 가장 많았고, 발생 장소는 논·밭비닐하우스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세 이상 48.1%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인 51~60세가 16.7%

로 뒤를 이어 고령자들의 온열환자 발생도가 높게 나타나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낮에는 농사일 등 체력소모가 많은 외부활동을 피해야 한다'며 '어지럼증 등 몸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히 119로 신고하거나 그늘에서 쉬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소방서, 안전사고 방지 119생활안전대 운영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119에 접수된 출동요청 중에서 화재·재난·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잠재적인 위험을 미연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7개 119생활안전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6월 현재까지 출동건수는 동물구조 146건, 발집제거 88건 등 총 4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01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러한 생활안전 상황은 당장 위급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있는 만큼 119생활안전대 활동도 화재나 재난현장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다.

한편, 익산소방서 박형섭 방호구조과장은 '최근 생활안전대 구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맞춰 보다 안전한 생활안전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소방이 되겠다.'며 다사한번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 해양수산분야 인권유린 행위 특별점검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해양·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예방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산경찰서 수사과는 해양 관련 성수기를 틈타 폭행·감금·야취·유인 등 각종 인권유린 및 불법 직업소개사범이 기승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산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선원숙소 이용모텔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으로는 장애인·노숙자·외국인 등 상대 취업방지 영리목적 약취유인행위, 도서지역 알선장, 염전 등에서의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선원상대 윤락알선·술값 명목으로 임금·선불금 편취 및 폭행, 그 밖에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업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인권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양종사자들 대상으로 인권유린 피해사태를 청취하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사건진상 파악과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에 대한 적극 홍보로 실질적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어업종사자·소개업자 등을 상대로 범죄정보 수집을 병행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점검 및 단속효율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김동봉 서장은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감금·야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더 이상 인권사각지대에서 해양종사자가 인권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 한국폴리텍대학 맞춤형 인력양성 간담회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는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백제웨딩홀 컨벤션센터에서 관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일학습병행제의 발전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내 기업 발전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및 기업들의 노력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각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기업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관내 기업과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는 사업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일학습병행제사업이다.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란 지역기업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수요부문에 있어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직업교육훈련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일학습병행제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보전 협약체결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제757부대 제7공수특전여단이 1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농촌지역의 농업용수 수질보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김선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박우영 제7공수특전여단 준장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상호협약에 따라 익산시 107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26개소 저수지를 합동점검하고, 정기점검 등을 통해 수질관리와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수질개선사업과 체계적인 농업용저수지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합동 진행한다. 재난 대응 훈련과 수질관리단

담당 합동 교육을 실시해 수질오염사고 적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용수의 수질을 관리한다.

또한 익산시 지역 내 농업기반시설의 환경정화과 수질보전사업 주민홍보 계몽활동 등을 전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질관리 활성화와 내 고향 물살리기 운동 등을 통해 주민 실천의식을 높인다.

각 기관은 상호협약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기금 마련 초청 음악회**

19일 익산 솔리 문화예술회관

오는 19일 오후 5시경 익산 솔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초청 음악회가 막을 올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음악회는 의료 오지 국가인 캄보디아를 찾아 지난 2000년부터 10회째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해외의료봉사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리는 음악회이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1997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떠났다 불의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매년 캄보디아 현지를 찾아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1, 2부로 나뉘어 열리는 이날 음악회 제1부에는 원불교 박정수 교무의 민족과 종교를 넘어선 초월적 삶을 담은 맑은 청, 빼어날 수 칸타타 곡이 울려져 가슴 따뜻한 인류애와 봉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2부 공연에서는 원광대병원 교직원들로 구성된 극단 '은혜로운 세상'의 뮤지컬 '헤어스프레이'와 뮤지컬 '스텝'이 감동을 원울림 합창단의 중후한 곡들이 맑은 영혼의 소리를 선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해외의료봉사 활동에는 긴 시간과 많은 인연 및 경비가 소요되는 힘든 봉사 활동이다.

원광대병원은 원누리후원회의 후원금과 지원을 비롯, 봉사자 개인 기부, 기금마련 음악회 등을 통해 해외의료봉사 활동비를 충당한다.

원광대학교병원 김명주 사회사업장은 "많은 분들이 음악회에 오셔서 나눔과 봉사 속에 깃든 은혜의 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그 동안 원광대학교병원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신 분들과 뒤에서 묵묵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익산=장양원기자